

장리상

걸리비아어

▶ 신진욱, 박병현, 이준서(한양대학교 ERICA)

리포트

최저임금의 인상은
실업률을 증가시킨다.

영 상

걸비머니_ 최저임금과 실업률의 관계



팀 소개 인사 및 각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2학년으로 이루어진 '걸리비아어' 팀입니다.

저희의 팀명은 걸리버 여행기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습니다.

2학년은, 1학년이 볼 때는 마치 거인처럼 커 보이지만

사실 저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세상에는 아직도 배울 것들이 너무 많기에
나 자신이 소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인이, 때로는 소인이 되는 세상에서 자만하지 않고
항상 배울 점을 찾으며 여행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담은 팀명입니다.

팩트체크 리포트

최저임금의 인상은 실업률을 증가시킨다.

팩트체크 계획 수립하기

☞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최저임금의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했으면 한다. 다양한 이유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반대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인상 부작용으로 실업률의 증가가 언급되고 있다. 이에 걸리비어는 정말로 최저임금의 인상이 실업률을 높이는지 팩트체크 해보고자 한다.

☞ 팩트체크 방법에 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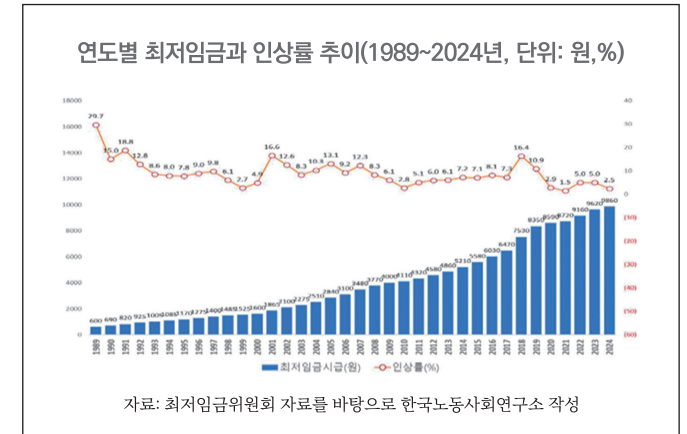
1. 개념 조사 - (최저임금과 관련한 용어)
2. 물가 상승률 조사 - (통계, 논문)
3. 최저임금 상승률 조사 - (통계, 논문)
4. 물가 상승 지표와 최저임금 상승 지표 비교
5. 최저임금 상승과 실업률 지표 간 연관성 조사
6. 실제 고용주와의 대화 (IDI)
7. 결론

체크해보기

개념 찾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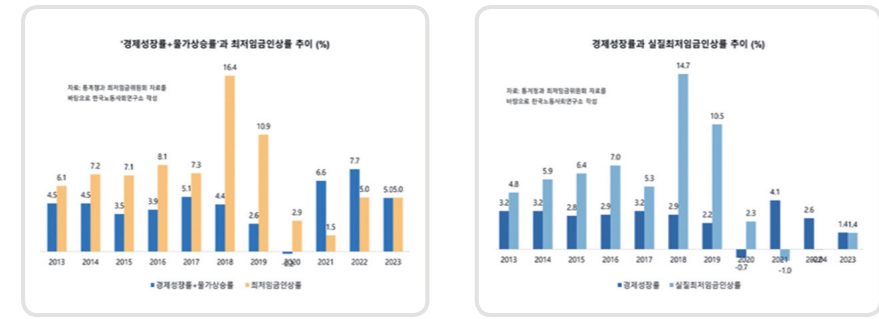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1988년 처음 시행했으며 시행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의결에 참여하여 논의 및 타협을 통해 선정된다. 2022년부터는 최저임금 가격 기준을 정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 + 물가상승률 전망치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공식을 참조하여 인상폭을 정하고 있다.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 추이,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인상률 추이는 하단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인상률 추이(2013~2023년, %)



물가상승률이란?

물가란, 시장에 있는 다양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평균가격 수준을 의미한다. 해당 가격을 특정 기준연도를 잡아 100으로 놓고 지수로 나타내는 것을 물가지수라고 하며, 물가지수의 변화율을 물가상승률이라고 한다. 국내의 물가지수는 1981년 이후부터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즉, 물가상승률은 항상 양(+)의 값을 가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전혀 반갑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를 확인하려면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참고하면 된다. CPI란 소비자가 일상 소비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 생계비나 화폐의 구매력 변동을 측정하는

물가지수를 의미한다. 국내의 CPI 상승률은 매년 양(+)의 값을 가지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5.1%가 올라 IMF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물가상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소비자물가 증가지수(2020=100)	93.0	94.2	94.9	95.8	97.6	99.1	99.5	100.0	102.5	107.7	111.6
소비자물가상승률(CPI)	1.3	1.3	0.7	1.0	1.9	1.5	0.4	0.5	2.5	5.1	3.6
식료품·비주류음료	0.9	0.3	1.6	2.3	3.4	2.8	0.0	4.4	5.9	5.9	5.5
주류 및 담배	1.7	-0.1	50.1	0.7	1.5	0.3	0.6	0.3	0.4	2.2	1.0
의류 및 생활	2.9	4.0	1.3	1.8	1.1	1.1	0.1	0.7	0.6	3.1	6.7
주택·수도·전기 및 열료	3.5	2.9	-0.6	-0.8	1.7	0.7	1.2	0.5	1.6	5.5	5.0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0.3	2.1	2.6	1.6	1.1	2.3	2.1	0.0	1.9	4.8	5.4
보건	0.4	0.7	1.3	1.0	0.9	-0.1	0.5	1.5	-0.1	0.8	1.6
교통	-0.5	-1.6	-7.8	-2.2	3.6	2.4	-1.8	-1.8	6.3	9.7	-3.4
통신	-0.1	-0.1	-0.2	0.1	0.3	-0.9	-2.3	-2.1	-0.9	0.9	1.0
오락 및 문화	1.0	0.4	-0.5	1.8	0.1	0.5	-0.2	-1.0	0.4	2.8	3.7
교육	1.2	1.5	1.7	1.6	1.1	1.4	0.5	-2.1	0.9	3.3	2.0
음식 및 숙박	1.6	1.5	2.3	2.5	2.4	3.0	1.8	0.9	2.7	7.6	6.0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5	3.1	2.7	3.4	2.8	0.6	1.6	2.0	2.0	6.1	5.8

승률의 %가 커질수록 소비자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은 분명하다. 적절한 물가 상승률의 기준은 경제성장률을 포함하여 확인하면 된다.

경제성장률이란?

경제성장률이란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연간 증가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금년의 실질 GDP가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가 혹은 감소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는 물가 수준의 변동을 제거하고 생산량의 변동만을 반영하여 만들었기에 시장에서 생산한 최종재의 시장가치만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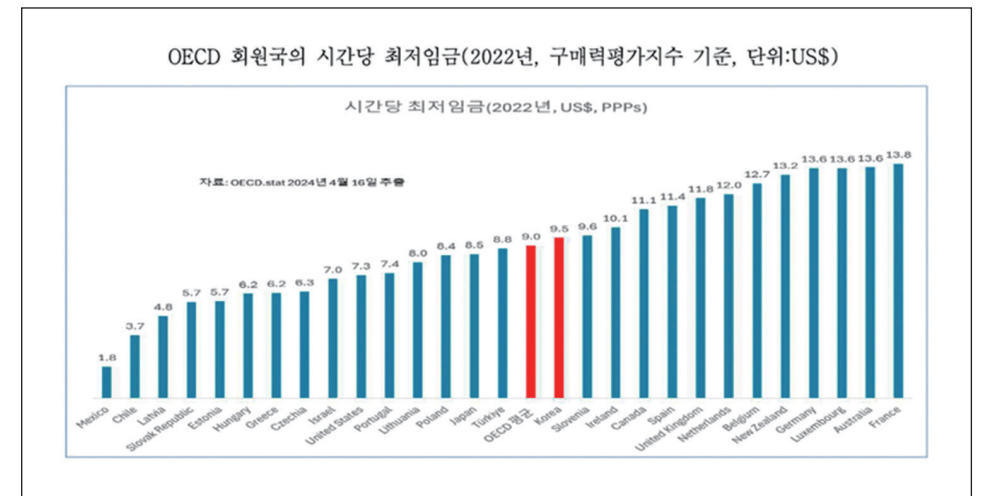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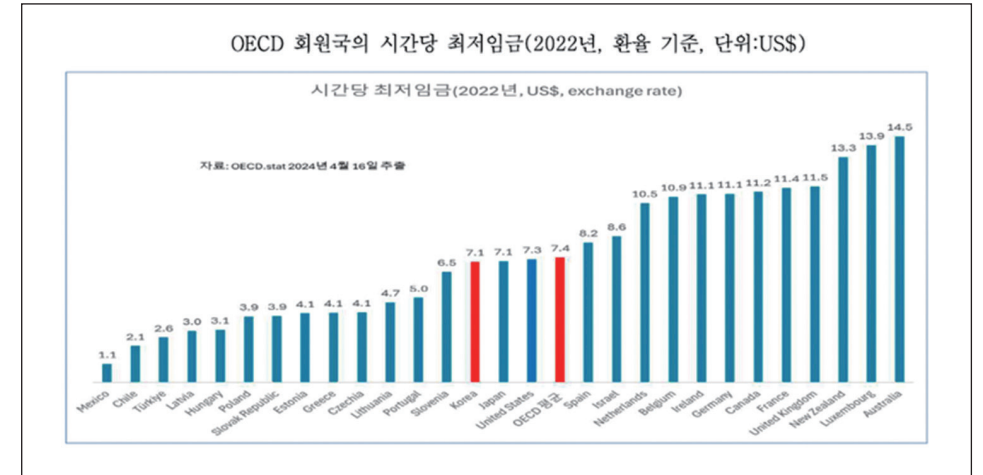
경제성장률

[단위: %]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9.9	9.1	6.8	3.7	2.4	3.2	3.2	2.8	2.9	3.2	2.9	2.2	-0.7	4.3	2.6	1.4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어떠한가?

한국의 최저임금 가격은 세계적 추세로 보았을 때 2022년 기준 환율 7.1, 구매력평가 지수 9.5로 아시아에서는 높은 수준에 속하며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평균 근처 혹은 낮은 편에 속한다. 해당 사실 또한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가장 최근의 최저임금은 어떻게 책정되었는가?

2024 올해 결정된 2025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정해졌는데,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이번 인상률에 대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데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2.6%에도

못 미친다는 점을 이루어보아 “2021, 2022년에 이어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한 미비한 상승률”이라며 아쉬움을 토론했고, 이와 반대로 경영계에서는 “1만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소규모 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며 1만원을 최초로 넘긴 이번 최저임금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요구치의 간격은 최초 2800원 차였을 정도로, 입장 차가 심한 모습이다.)

실업률이란?

실업률은 특정 연령대 인구 중 실제로 일자리를 찾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인구조사나 고용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실업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이며,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이러한 실업자의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현한다. 따라서 실업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의 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분율로 표현하여 실업률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경제활동인구란 일을 할 수 있어서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주로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청년·장년층 인구를 말한다. 실업자도 경제활동인구에 잡히지만, 일을 그만둔 사람은 무조건 경제활동인구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대학생이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개학을 하여 일을 그만둔 경우 그만둘 때에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실업률의 상관관계

‘있다’를 뒷받침하는 자료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 / 2023.06.26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5064&category=ST
한경협이 2023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현재 상승폭으로 인상시킬 경우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인 12,210원으로 확정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9만 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24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

인상률 (%)	시나리오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수 (천 명)	일자리변화율		일자리 감소	
	최저임금	비고		최소 (%)	최대 (%)	최소 (천 명)	최대 (천 명)
①3.95	10,000원	-	3,437	-0.8	-2.0	-28	-69
②4.99	10,100원	지난해 인상률 기준	3,437	-1.0	-2.5	-36	-87
③26.92	12,210원	노동계 주장안 기준	3,437	-5.6	-13.7	-194	-470

* 주: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수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 기준

-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자리소멸이 급속하게 이뤄진 2021년에 지역별, 종사자규모별, 소득별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을 통제하여서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였음.
- 그럼에도 2021년 최저임금인상의 일자리감소에 대한 추정결과는 코로나 19의 영향을 순전하게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2014년 전망에는 추정치로 적용하지 않았음.
- 2024년 최저임금 상승이 지역, 업종, 종사자규모, 임금지위, 연령, 소득분위에 상관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면 지역, 업종, 종사자규모 등 노동수요측면에서는 서울지역의 음식숙박 및 건설업 부문에 속한 종사자규모 1~4명 사업체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수 있음. 정규직, 청년층, 소득 2분위 등 노동공급자측면에서의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효과는 지역, 업종, 종사자규모, 소득분위, 임금지위, 연령에 따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업종, 지역, 종사자규모, 연령 등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해야 힘을 시사함.
- 특히, 2021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가 매우 민감하게 나타난 광주/전북/전남/제주도 지역의 BIG3(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산업, 교육서비스, 시설관리서비스, 운수창고서비스 업종의 소득 5 분위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음.

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 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유승호 기자 / 2022.05.30 17:08

임금도 수요·공급이 결정... 무작정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 생글생글

▶ 임금과 일자리의 관계

- 임금은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정부의 개입 없이 균형임금에서 결정된다.
- 정부가 균형임금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노동 공급은 증가하지만 노동 수요는 감소하여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시급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면, 생산성이 이보다 낮은 곳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법 노동행위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 실제 사례

*미국의 최저임금제 도입 (1938):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후, 흑인 실업률이 급증한 사례가 있다. 당시 백인과 흑인의 실업률은 비슷했으나,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흑인 실업률이 더 크게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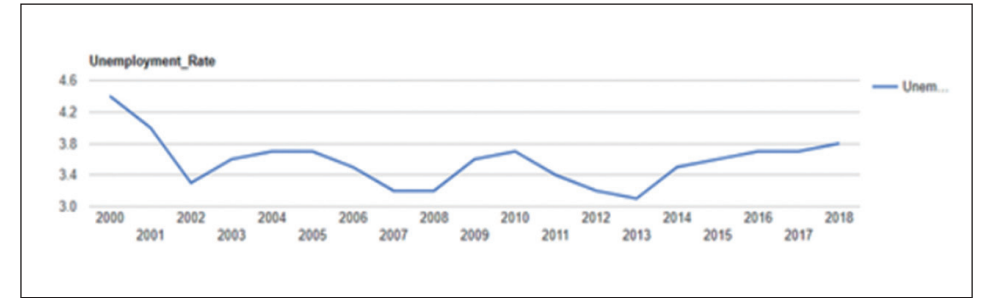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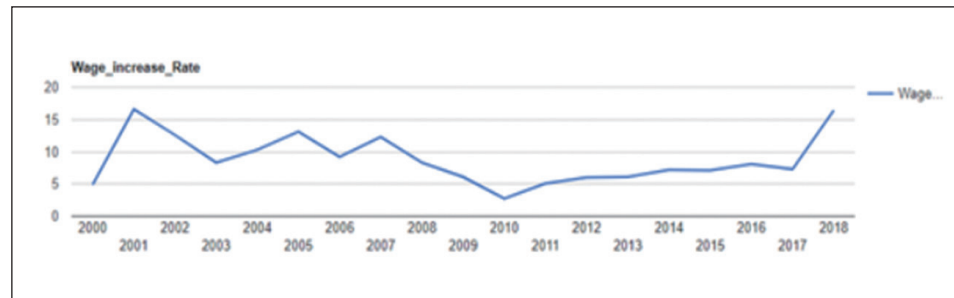
**한국의 연구 결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유혜미 한양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결과, 총고용이 3.5% 줄고, 총생산이 1.0% 감소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과 달리 고용과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한다.

‘없다’와 관련한 주장

최저임금과 취업률, 실업률

통합 데이터 지도 / 2019.11.23

통합 데이터 지도에 따르면, 통계 자료를 통해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툴인 R스튜디오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상승률 통계와 실업률 통계를 대입해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본 결과,



(위에서부터 각각 2018년까지의 대한민국 최저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통계이다.) 두 통계 사이의 상관관계는 0.1060881로, 통계학적으로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어서 실업률에는 최저임금 상승률보다는 다른 국제적 경제 문제의 영향이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데이비드 카드 교수의 조사 연구 저서

또한, 데이비드 카드 교수의 '신화와 측정: 최저임금의 경제학' 저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실업률을 늘린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드 교수는 미국에 있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던 패스트푸드점 410개를 조사 연구를 하였는데, 4.25달러에서 5.05달러로 최저임금이 약 18%가량 늘었지만 일자리가 줄어든 매점은 없다는 조사 결과를 얻었다.

카드 교수는 해당 저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상승과 실업률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을 분석하고, 해당 저서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최저임금 인상’ “사업장 다 죽는다”?... 고용에 영향 미치는 영향 ‘無’ 세계일보 / 2024.08.18
[‘최저임금 인상’ “사업장 다 죽는다”?... 고용에 영향 미치는 영향 ‘無’]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818509044>

최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보고 분석 보고서'에서는 실제 사업체 전체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새 최저임금의 인상이 부담되어 고용을 줄였다는 사업체의 비율이 34%에서 10% 수준까지 줄어든 것을 조사하였다.

서적 찾아보기

<최저임금 딜레마>

독일의 경우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제를 적용 중이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다르게 만족도가 높은 편임

그 이유는 자영업자의 절대적인 수가 적은 편이고, 건물의 임대료가 적어 자영업자가 느끼는 인건비의 부담이 적은 편임.

대한민국의 경우

자영업자 안에서도 소득 분위가 나뉘는 편임. 1분위에서 2분위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들은 상승하는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에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음. 하지만 실질적인 실업률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빈부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 소득 재분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물가도 낮아지지 않고, 마찬가지로 1분위에 걸쳐있는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소득 재분배를 목표로 해야 함.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빈부격차가 줄어들어, 결국은 자영업자나 아르바이트생이나 고용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 분배는 좋은 편이 아니다. 임금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노동자나 고용주의 입장 하나만으로는 정할 수가 없다.

직업의 형태에 국한되지 않은,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할 때.

물어보기

1. 기본 질문

Q. 자영업을 운영하신 지 얼마나 되었나요? 주로 어떤 업종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 17년부터 시작하여 8년 되었습니다. 음료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

학교 앞 '아마스O' 카페 사장님과의 인터뷰

Q1. 최저임금 인상이 귀하의 사업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예: 운영 비용, 수익성 등)

->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에 약 6프로정도 더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매출에 13~15프로가 인건비입니다.

Q2.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 고용을 줄이거나 다른 변화를 고려하신 적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은 조금 더 늘었지만 사정상 줄이거나 변화를 줄 수 없어 인상 전과 같이 계속 유지중입니다.

Q3. 현재 최저임금이 물가 대비 타당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자영업자입장에서 부담이 되지만 물가대비 타당한 임금이라 생각합니다.

3. 실업률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

Q. 주변의 다른 자영업자들과 이야기할 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그들도 인력 감축이나 채용 제한을 고려한 사례가 있었나요?

-> 주변 상인분들께선 많이 부담이 되어서 저녁 늦은 타임이나 주말 등 일을 하시고 인원감축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최저임금과 같이 주휴수당도 많이 부담이 되신다 합니다.

학교 앞 닭갈비 집 '일O' 사장님과의 인터뷰

Q1. 현재 최저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식당 영업에 얼마나 힘이 드나요?

-> 인원수 별로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부담스럽죠.

Q2. 만약 최저시급이 더 오른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실 것 같나요?

-> 인원을 줄이거나, 그만큼의 금액이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바쁘니까 금액을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Q3. 물가가 오른다면 최저시급도 올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지금 그렇게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Q4. 최저시급 지불, 얼마까지 지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지금 현재는 만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오르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 작성하기

최저임금 가격 기준을 정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 + 물가상승률 전망치 -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공식을 참조하여 인상폭이 정해진다.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을 분석해 보았을 때, 현재의 최저임금 실질적 인상률은 적절한 수준이다. 하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낮은 편에 속하며, 절대적 임금 수준 또한 낮다. 노동자의 실질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최저임금의 인상은 필수적이다, 반면 고용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그리 높지 않음에도,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이 43.2%에 달할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근본적 의문 ‘최저임금의 인상은 실업률을 높이는가?’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이 무조건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실업률에는 최저임금보다 기타 경제적 문제(물가 상승,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 또한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자영업자의 인터뷰 결과, 평균적으로 인건비가 매출의 00%가 이상을 차지하면, 아르바이트생 고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을 얻었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률보다는 매출과 여유자금에 의해 실업률이 결정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무자비하게, 점포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만큼 오르지 않는 이상, 최저임금의 인상은 실업률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다양한 문헌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정말로 ‘최저임금이 실업률을 높이는가?’에 대해 고찰해 본 저희 걸리비어는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이다. 지금부터 그 결론에 대해 설명하겠다. 먼저, 문헌조사이다. 저희는 다양한 업종을 표본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을 때, 실업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자 여러 인터뷰를 진행해 본 결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과 실업률 증가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실업률의 증가가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실업률이 증가하더라도 ‘노동수요의 탄력성’에 따라 노동자들이 받는 총임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탄력적이다’라는 뜻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인데, 다시 말해 가격 변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크다는 것이다. 노동 수요곡선이 탄력적이라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이 변화하였을 때 재빠르게 그 가격 변화에 따라서 크게 수요량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수요곡선이 비탄력적일 때는 변화에 둔감한 것.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 보자면, 고급 시계와 같은 사치품은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기에 가격이 상승하면 많은 소비자가 구매하기를 꺼릴 것이고, 가격이 하락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쌀과 같은 필수품은 대체제가 없는 만큼, 값이 비싸든 저렴하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양을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하지만 그 양이 항상 적당한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시계는 탄력적인 제품, 쌀은 비탄력적인 제품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노동 수요 시장이 탄력적이라면 임금의 변화에 따라 고용량이 변화하기 쉽고, 노동 수요 시장이 비탄력적일 때 임금의 변화에 따른 고용량의 변화가 적다. 이 비탄력적인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했을 때 실업자가 적게 발생하며 실질한 근로자들의 총 임금 감소분보다, 해고에서 살아남은 근로자들의 총 임금 증가분이 더 크게 된다. 물론 일부 기업이 고용량을 줄이게 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 중에서도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일부 노동자가 실직될 수 있겠지만, 최저임금과 실업률의 증가를 마냥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른 최저임금의 인상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업률의 증가 또한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다. 실업률의 증가라는 워딩은 자칫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조금만 넓은 시야로 본다면 자연스럽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필연적 과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득 재분배를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현상이다.

해당 문제의 해결 방안

- 1) 최저임금이 실업률 증가에 갖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타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갖는 긍정적 효과를 강조해야 한다.
- 2) 최저임금만의 기본적 목적은 물가 상승률에 임금 수준을 맞추는 것과 소득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만으로 소득 재분배를 해결할 수는 없다. 다각도에서 재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 3)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임금, 평균임금과 같은 특정 지표와 함께 장기적으로 연동하고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미디어 콘텐츠

걸비머니_ 최저임금과 실업률의 관계

콘텐츠 소개

⊕ 기획의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던 중, 최저임금의 인상률을 정할 때 노동계와 고용계가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을 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꼭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률이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끼친다”라는 의견이 등장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진 걸리비어는, 의견 교류 과정에서 팀 내에서도 최저임금의 인상과 실업률 상승의 관계성에 대해 의견이 나뉘는 것을 발견하였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실업률이 상승하는가”에 팩트체크를 진행해보고 싶어서 해당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팀 내에서도 의견이 달랐던 만큼 다른 사람들도 정보가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정보를 전달하는 형태의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다.

⊕ 상세설명

여러 먹거리 브랜드의 역사와 이야기를 들려주는 14F 채널의 “돈술랭” 시리즈를 모티브로 하여, 최저임금과 실업률의 연관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최저임금과 실업률에 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였다. 먼저 최저임금과 실업률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실업률에 대한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전달하고, 최저임금과 실업률이 정말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쟁에 대해 파헤쳐보며, 실제 자영업자와 실업자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과 실업률에 대한 우리 팀의 생각을 공유하고, 단순 최저임금과 실업률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고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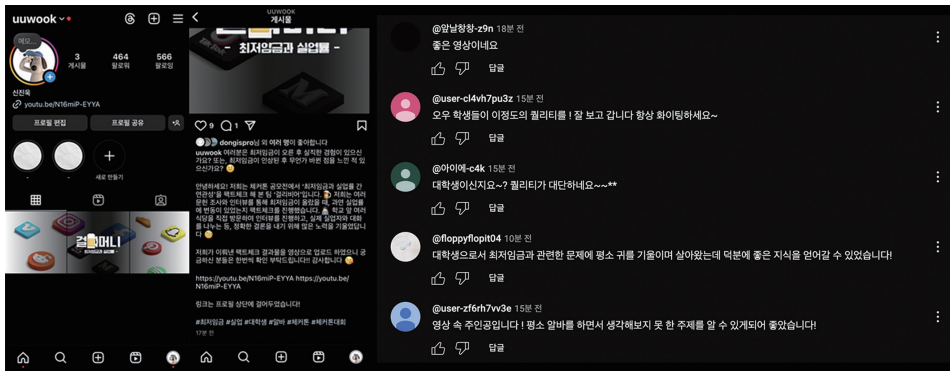
홍보 및 캠페인 활동

[온라인 상영회]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의 타깃은 10대와 20대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해 봤으며 최저임금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 없이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칫 잘못된 인식과 관념을 굳힐 수 있게 된다.

이에 걸리비어는 10대와 20대가 주 이용자인 유튜브 플랫폼에 미디어 콘텐츠를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캠페인을 기획하였다. 또한, 유튜브 내 댓글 이벤트를 통해 영상을 시청한 후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영상의 유입을 위해 10대와 20대가 많이 사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또한 홍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였다.

• 활동 사진



[오프라인 상영회]

대학교 내 학회 시간을 활용해 걸리비어 팀이 제작한 미디어 콘텐츠를 보여줌으로써 걸리비어의 콘텐츠의 주 타깃인 20대 대학생들에게 콘텐츠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상 학회라는 특징을 활용하여, 영상으로서의 완성도를 분석하는 시간도 가져, 대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 활동 사진



578 최저임금의 인상은 실업률을 증가시킨다.

참여소감

신진욱

이번 팩트체크 프로젝트를 통해 최저임금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인터뷰를 진행하며 여러 입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실업률을 높이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이 소비를 증가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최저임금 정책이 단순한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팩트체크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경제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싶다는 의욕이 생겼습니다.

이준서

팀과 함께 최저임금과 실업률의 관계를 분석하며 여러 문헌을 조사하는 과정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의 논쟁을 다룬 자료들을 읽으며, 이 주제가 단순히 숫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복잡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실업률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비교하면서, 어떤 조건에서 최저임금이 고용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팩트체크 활동은 저에게 경제적 사고를 확장하는 기회를 주었고, 향후 경제 문제를 다룰 때 더욱 심도 있는 시각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박병헌

최저임금과 실업률에 대한 팩트체크를 진행하면서, 이 주제가 얼마나 다면적인지를 느꼈습니다. 특히,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가진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사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실업률을 높인다고 단정 짓지만, 실제로는 산업별, 지역별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경제 문제를 다룰 때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여러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